

4.11 총선 돋보기

(2) 얼굴알리기 출근 인사 경성

孫 “지분나누기 안돼... 국민경선을”  
진보 “지역독점 해소 기준안 필요”

2시간 동안 3천배 “아이고 허리야”

(三千拜)

차량 소통 많은 명당자리 확보전도  
현역보다 예비 후보·정치신인들 선호

4월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들의 경성 출근 인사로부터 시작된다. 새벽부터 인근 시장과 상가 등을 방문해 지지부 호소한 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차량 소통이 가장 많은 지역구 사거리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것이다. 출근 인사는 보통 아침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된다. 적게는 1000배에서, 1500배를 하게 되는 출근 인사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출근 인사에 나섰다가 허리를 다쳐 상당 기간 고생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계에서는 출근 인사를 불교에서의 3000배와

비교하기도 한다. 뱃지를 달기 위해 서는 그만큼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의 모 예비 후보는 “처음 출근 인사를 마친 후, 허리 통증으로 상당히 고생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관찮으며 오히려 출근 인사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의지를 다진다”고 말했다.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출근 인사는 인지도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통이 많은 교차로의 경우 두 시간 동안 통과하는 차량이 최소 1000대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하면 매일 2000~3000명의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도 강추위 속에서 새벽부터 허엿없이 인사(?)를 해오는 예비 후보들을 보며 애잔함을 느끼게 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예비 후보나 정치신인들이 출근 인사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에서 매일 출근 인사에 나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1~2명에 불과한 반면, 예비 후보들은 10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허리가 너무 뻐뻐(?)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지도 제고 효과가 있다 보니 예비 후보들 간에 출근 인사 명당자리 확보를 위한 신경전도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각 후보 캠프에서 조정

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소통이 많은 명당자리가 한 지역구에 보통 2~3곳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출근 인사에 서툰 일부 예비 후보들은 타 지역구에서 넘어오는 차량에 대고 인사를 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한다. 광주 모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가 출근 인사를 한다 고 해서 가보니까 다른 지역구에서 오는 차량에 인사를 하고 있어 자리를 옮겨서 다시 인사를 시작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출근 인사는 인지도 제고 효과가 목표이긴 하지만 가장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고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인사는라 점 에서 함유하고 있는 의미가 크다” 며 “정치인들이 출근 인사 명당리 보를 위한 신경전도 벌어지기도 한 다. 이 경우, 각 후보 캠프에서 조정

광주·전남 야권연대 공방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선 출근을 앞두고 야권 단일대오를 위해서는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인위적인 야권연대는 정당 책임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야권연대 내에서는 예비후보들이 총선이란 목적지를 향해 이미 출발전에서 발을 댄 상황에서 야권연대를 위해 이들 예비후보를 주저앉히기가 녹록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 20개 선거구 중 어떤 기준으로 야권연대 선거구를 일화할지 기회를 발탁당한 채 살육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2년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처럼 무공천으로, 일방적으로 통합진보 당에 후보를 양보하기보다는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 중 국민경선을 통해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민주당 당내에서는 예비후보들이 총선이란 목적지를 향해 이미 출발전에서 발을 댄 상황에서 야권연대를 위해 이들 예비후보를 주저앉히기가 녹록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 20개 선거구 중 어떤 기준으로 야권연대 선거구를 일화할지 기회를 발탁당한 채 살육

진보 색채가 강한 일부 민주당 지도부는 연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야권연대 논의가 조만간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손 전 대표가 야권단일화 방식으로 제안한 국민경선은 인지도와 조직력, 언론노출 빈도 등에서 앞서는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지도도를 반영하고 지역독점을 해소할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야권연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개정 선거법 설명듣는 보좌관들. 지난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국선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의 참석자들이 개정 선거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시중, 친이계 인사에 돈봉투”

정치권 인사들 “명절·휴가때 챙겨”

최시중 “모르는 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명절 등을 맞아 여권의 일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과 주간 시사저널 등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친이계 의원은 “최 위원장이 2008년 9월 추석 직전 친이계 일부 의원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렸다”며 “최 위원장이 내게도 챙겨주었지만 최 전 의원의 보좌역이었던 정용욱 씨에게 즉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위원장과 헤어질 때 ‘차에 소피백을 실어줬다’고 해 나중에 보니 2000만원이 들어 있어 곧바로 돌려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또 이 의원 외에 다른 친이계 의원

2명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현찰이 정 보좌역을 통해 전달됐으며 이들 역시 즉각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에 앞장섰던 정두언 의원 측은 그러나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최 전 위원장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정두언 의원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 전 위원장 측이 친이계 의원들을 위주로 설연휴와 여름 휴가, 연말이나 출근기념회 때 의원별로 돈봉투를 건네는 등 평소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설왕설래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상승세 무섭다

문재인 25.3% 안철수 22.7%... 첫 추월

리서치뷰 조사

민주당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이 35.4%로 가장 높았다. 문 고문은 25.3%의 지지율을 보였고, 안 원장은 22.7%로 나타났다. 직전인 12월 말 조사 때는 안 원장(30.3%), 박 비대위원장(29.7%), 문 고문(17.2%) 순이었다. 한 나라당 대선주자를 주도하고 있는 박 비대위원장이 수위로 치고 나옴과 문 고문이 오차범위 내에서 안 원장을 앞선 것이다. /연합뉴스

이 조사는 설 연휴이후인 지난 27~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도 95%, 표본오차 ± 2.5%포인트다. 문 고문의 지지율이 안 원장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고문은 진보진영 대선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9.3%의 지지율을 얻어 안 원장(27.9%)을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뷰 안원일 대표는 “부산 출마로 승부수를 던진 문 고문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안 원장이 지난 21일 여의도 정치와 거리로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다시 문 고문을 주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 선거법 설명듣는 보좌관들

지난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국선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의 참석자들이 개정 선거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공천위원장에 정홍원 변호사

부위원장 정중섭...11명중 8명 외부인사 ‘탈정치 깜짝인선’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4·11 총선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공천위) 위원장에 정홍원(68·사진)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공천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외부인사 8명과 국회의원 3명 등 11명의 공천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천위 부위원장에는 정중섭 서울 법대 학장, 공천위원으로는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황궁우주 분야 권위자인 박승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정동극장 극장장과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을 지낸 홍사중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학교폭력예방 시민단체인 ‘패트럴맘중앙회’의 진영아 회장, 뮤지컬 대중화를 이끈 박영선 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인선됐다. 당내 위원은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범 선출에 출마하지 않는 현기환·이재주 의원 등 3명이 들어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천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지역 주민이 ‘이런 사람이 한나라당 후

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할만한 분을 뽑는 것을 최우선의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 혀서 당내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공천위는 비례대표 후보까지 추천하며 과거의 비례대표 공천위의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최상의대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전문매각 대표이사 010-5879-0005. 속박사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양준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택 김태호팀장 011-684-3886.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전)과정' 1학기(15주) 수강예약 2012년 2월 25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광주대앞(지하)호프 분식60평. 원룸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게임동 이마트 1층 1칸. 전체매매가 2억5천3백. 대출+보증금 공제후 실인수가 3천5백만원. 상담 010-6654-6888.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사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오피스텔 상가. 시청앞 오피스텔상가(1층)분양가 이하 급매 1,174㎡. 매매가 상담후 결정. 분할매각 가능합니다. 투자 및 사업용 토지. 광산구 승정동 송정역 부근 4,260㎡. 제2종일반주거역. 35㎡계획도로 접합.매매가 3.3㎡당 110만원. 광산구 승정동 송정역앞 1,117㎡. 제2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300만원. 광산구 승정동 송정역 뒤편 628㎡ 제1종일반주거. 매매가 3.3㎡당 105만. 광산구 용동 지하철 차량기지제 제1종일반주거지역.629㎡. 3.3㎡당 95만. 목포.순천.여수 도시형생활주택 부지500-1000평구할. 주거2층이상에서 상업지역까지. 급매서구 화정동 터미널 뒷편.868㎡. 일반상업지역. 3.3㎡당 280만원. 공시지가는 3.3㎡당.325만원. 서구 치평동(사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한국은행 뒷편 990㎡. 3.3㎡당. 590만원.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전. 2차선 도로접합 1,035㎡(313평) (도로 77평포함).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 사무실.기타.적합. 동구 소태동 대아아파트 부근. 집합주택.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제된 국유지 구가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전문식당적지.(보리밭.축염소.순두부.등). 010-3616-8698. 062-233-2222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복합상가(매매). 복선동 1층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 보증금20% 월임대료1,200만원. 복선동 1층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청담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보증금)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청담 1층복합상가 120평 평당 790만원(9%보증금) 임대보증금 8,000만원 월임대료 500만원. 신원동 5층화원건물 (건물면적 350평) (매가5억8천) 임대보증금9천만원/월임대료300만원. 토지(매매). 사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용가능.식당영양음). 사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사무지구) (반화기 사거리코너). 사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사무지구) (유용가능). 사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청앞) (원시사육.오피스텔등 적합). 동원지구주거지역.운양-하남 간대로변4,470㎡(약1,352평) -평당330만원(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웃끼리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9-5221 (사무지구 이버들 길자랑 1층)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960평 -매매금액:45억원 -용지역적:20억원포함. 사무지구빌딩매매. -대 지: 257평 -연건평: 900평 -보증금: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10억원 -매매가: 38억. 아파트 1층상가 매매. -분양면적: 106평 -보증금:3억5천만원/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사무지구롯데시네마 11층. -분양면적: 600평 -전용면적: 350평 -대형음식점, 뷔페 적합 -매매가 상담후 결정. 사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동. 대문동. 신봉사거리-편)

대인동살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열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동. 대문동. 신봉사거리-편)